

미래차 기술에 배고픈 현대차... 스타트업에 4400억 투자

‘얼굴인식’ 中 딥글린트에 418억
‘자율차’ 美 오로라에 239억 등
상반기 해외기업 6곳 투자집행

현대자동차가 미래차 기술 개발과 관련해 올 상반기에만 해외 스타트업 6개사에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현대차에 따르면 상반기에 오디오버스트와 리얼타임로보틱스, 오로라, 펜세어, 아리벨 테크놀로지, 딥글린트 등 6개 스타트업에 모두 779억원을 최초로 출자했다.

투자 금액은 중국의 얼굴인식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글린트가 417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현대차는 5월

에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지분 6.48%를 취득해 딥글린트는 ‘관계사’가 됐다.

앞서 현대차는 작년 6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전자제품박람회 ‘CES 아시아 2018’에 참가해 딥글린트와 기술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AI를 활용한 영상인식 분야의 선도 스타트업인 딥글린트의 안면인식과 분석 시스템은 50m 거리에서 10명 가운뎃 1명의 얼굴을 1초 안에 판별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도 올해 5월 딥글린트에 59억원을 전략투자했다. 현대모비스는 딥글린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딥러닝을 활용한 차량 내부 동작인식과 패턴 분

석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대차는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오로라에 239억 1000만원을 투자했다. 오로라에는 기아차도 상반기에 59억 8000만원을 출자해 현대차그룹은 298억 9000만원을 출자했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현재 보유한 오로라의 지분율은 1% 미만으로 추가 출자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오디오버스트에도 56억 8000만원을 투자해 지분 5.35%를 확보했다. 오디오버스트는 AI를 적용한 오디오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투자도 받은 바 있다.

현대차는 올해 5월에는 미국 로봇

스타트업 리얼타임로보틱스에 17억 5500만원을 출자해 지분 2.62%를 확보했다.

이밖에 현대차는 액션 카메라 업체인 펜세어에 29억 7800만원, 디지털 후각 관련 스타트업인 프랑스 아리벨 테크놀로지에 15억 3200만원을 각각 투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이 지난 3월 발표한 인도 차량호출업체 올라에 대한 전략 투자 계획은 상반기 기준으로는 집행되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이 올라에 투자하는 3억 달러(약 3600억원)는 외부 기업에 한 단 일투자자로 역대 최대 규모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LG전자는 IFA2019에 이탈리아 건축가와 협업해 부스를 조성했다.

/LG전자

독일 IFA2019에 ‘LG 시그니처 부스’

건축가 마시밀리아노 폭사스와 협업

LG 시그니처가 이탈리아 유명 건축가와 작품을 만들어낸다.

LG전자는 다음달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2019에서 마시밀리아노 폭사스와 함께 LG 시그니처 부스를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기술에 영감을 주는 예술, 예술을 완성하는 기술’이라는 캠페인 슬로건에 맞춰 협업을 결정했다. ‘무한’을 주제로 원통속 거울을 이용해 LG 시그니처를 표현했다.

전시 제품은 올레드 TV와 냉장고, 세탁기와 에어컨 등 LG시그니처 라인업 전체다.

/김재홍 기자 juk@

LG전자는 기술과 예술을 접목해 고객들에 LG 시그니처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마시밀리아노 폭사스는 “LG 시그니처는 기술과 예술이 완벽히 결합한 결과물”이라며 “집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럭셔리와 프리미엄을 새롭게 정의했다”고 말했다.

LG전자 유럽지역대표 나영배 부사장은 “LG 시그니처의 본질을 건축미의 관점에서 선보일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이다”며 “고객들이 이번 전시에서 초프리미엄 LG 시그니처의 혁신적인 성능과 정제된 디자인을 새로운 방식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갤노트10 홀디스플레이 ‘업계 최고’

글로벌 인증기관 UL서 인정받아

삼성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인증기관 UL(유엘)로부터 ‘갤럭시노트10·10+’용 홀디스플레이의 화질 균일도와 빛 투과율 부문에서 업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성능 레이저를 활용한 편칭 기술로 디스플레이 상단부에 완전히 독립된 지름 4.7mm의 홀을 구현했다. 홀의 크기는 상반기 갤럭시S10용 홀디스플레이 대비 더 작고 정교해졌다.

UL은 홀 디스플레이의 화질 균일도를 측정하기 위해 홀 주변부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전면 13개의 포인트를 지정하고 밝기와 색상의 균일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전면 구동했을 때 98%의 색 균일도를 달성했다.

홀 부분의 투과율 측정을 위해 실시된 광량 투과 테스트에서 프리미엄 홀디스플레이는 기존의 스마트폰 카메라와 동일한 92%의 높은 투과율을 기록했다. 이는 홀을 활용해 카메라가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들어왔지만 성능은 카메라 렌즈가 외부에 노출된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와 동일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높은 화질 균일도와 투과율을 가능케 한 것은 플렉시블 OLED만의 간결한 적층 구조다. 박막의 폴리이미드 기판 위에 증착된 플렉시블 OLED는 레이저를 통한 홀 가공에 유리하며 패널의 물리적 변형에 따른 픽셀 변형도 적다. 또한 홀을 포함한 패널 상부에 윈도우 글라스가 올라가는 간결한 구조로 투과율 면에서도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와 동등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독 니르부르크링에 모인 현대차 핵심 임원들

제네시스 ‘시속 280km’ 달리며 한계 시험

현대차그룹, 새 모델 등 성능점검
연구개발·상품개발 임원 등 참여

현대자동차그룹이 제네시스 새 모델 등 차세대 전략차종 성능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상품 부문 임원들을 독일 니르부르크링으로 출동시켰다.

현대차그룹은 연구개발본부 전 부문 임원과 상품개발 담당 임원들이 해외에서 함께 차 주행 성능을 점검한 것은 처음이라고 20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15~17일 독일 니르부르크링의 테스트센터에서 현대차·기아차와 제네시스 차세대 전략차종의 성능을 종합 점검하는 트랙 데이였다.

연구개발본부 알버트 비어만 사장뿐 아니라 디자인담당 투크 동커볼케 부사장, 제품통합개발, 아키텍처, 새시, P M, 내구, 파워트레인, NVH 부문 임원, 현대차의 제품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상품본부의 토마스 슈미에라 부사장, 유럽 권역의 현대차·기아차·제네시스 상품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테스트 모델은 제네시스 G70, JX(개발명·GV80), RG3(개발명·신형 G80)와 현대차 벨로스터 N, i30 N line, 기아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XCeed와 다



지난 16일 독일 라인란트팔트 주 니르부르크에 있는 니르부르크링에서 연구개발 및 상품담당 임원들이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가 개발 중인 테스트 차량들의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른 브랜드의 경쟁 차종이다.

이번 트랙 데이에서는 먼저 아우토반 속도무제한 구간에서 최고 시속 280km까지 달리고 연속 커브가 이어진 국도와 노면이 불규칙한 시골길 등을 주행하며 일반 도로 테스트를 했다. 이어 세계 최장(20.8km)이면서 주행 조건이 가혹한 레이싱 서킷인 니르부르크링에서 한계를 시험했다.

이 같이 연구개발과 상품 관련 임원들이 한 자리에서 차세대 전략 차종 제품 테스트를 대대적으로 한 것은 최근 단행한 제품개발 프로세스 혁신의 연장선상이라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현대차·기아차는 3월 상품본부 조직을 세분화된 차급과 전동화, 미래차 중심으로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7월

에는 자동차산업 변화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조직을 재정비했다.

이번 테스트 장소 선정에는 최근 유럽에서 현대·기아차의 상승세가 영향을 줬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유럽시장에서 처음으로 100만대 판매를 기록하며 점유율 6.7%를 찍었다.

비어만 사장은 “최근 R&D(연구 및 개발) 조직 개편은 제품을 기획하는 상품 부문과 개발 부문간의 협업을 위한 시작점이었다”라며 “이번 트랙데이가 개발자로 한정됐던 현지 평가에 상품 담당자를 포함시켜 앞으로 개발 방향과 프로세스에 혁신을 꾀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철광석 값 25% 급락... 100달러 이하로

철광석 가격이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철강업계는 ‘일회일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철광석 가격은 약 2주만에 25% 급락하며 톤당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 철광석 가격 인하가 하반기 실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급락한 만큼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른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중국 철광석 수입 가격은 1월 초 톤당 72.63달러에서 7월 초 124.05달러까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치솟았다가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회사 발리 소유의 브라질 광산 댐 붕괴와 중국 조강 생산량 급증 및 위안화 약세 등으로 지난 15일 88달러로 떨어졌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도 가격 하락의

업계, 울며 가격 등락폭 커져
계획대로 하반기 제품값 인상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글로벌 경제 위축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다른 원자재보다 상승 폭이 컸던 철광석이 영향을 받았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선다. 상반기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제품이 인상으로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철강업계는 철광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 부진 탓에 올 상반기 후반(조선업 주요 원재료인 두께 6mm 이상 철판)과 자동차강판 가격을 동결한 바 있다. /정연우 기자